

투데이 칼럼

조소목 선생님을 기리며

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시던 조소목 아동문학가이자 사진작가가 한 달여 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와는 크게 인연은 없지만 전주 명문 신아출판사에서 '소년문학' 편집장으로 수고하시는 최영환 선생님께서로부터 훌륭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훌륭한 정신을 널리 알리려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차일피일 미루고 실천하지 못하다가 조소목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알게 되었다. 조 선생님은 한평생 자기용도 운전할 줄 모르고 대중교통에 의존한 채 사셨으며, 평소에는 자전거만 타고 다니던 분이셨다. 전주에서는 '전라시조'와 '전북 아동문학회' 회원으로 주로 문학 활동을 하셨는데, 전주 모임에 오신다고 하면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셨기에 회원들이 서로 터미널로 마중을 나가서 모셔오기도 했다. 한평생 농사짓고 꽃을 기르며 틈틈이 시간이 나면 사진작가로 활동하시고, 아동문화와 시조문학에 심취해서 활발한 예술 활동을 하시던 분이셨다. 사진 부문에서 탁월한 예술적 감각으로 전북사진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셨으며, 조류에 관한 사진집도 발간하시고 각종 대회에 작품을 출품하여 상도 많이 받으셨다고 한다.



이만호
본사 정치부장



조소목 선생님

글 쓰는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아 1989년 현대시조에 등단하신 후 1989년 중앙문학에 수필로 등단하시고, 1989년 월간 아동문학에 등시로 등단한 문예 부문 3관왕의 등단 작가이자, 농협중앙회 새농민 체험수기 공모전에도 당선되신바 있는 자타공인 인정받는 문인이셨다. 상도 많이 받아서 1987년 군산 시민의 장 문화장, 1992년 제2회 한국 아동문화대상, 1999년 제21회 한국 아동문학 작가상 등 12개의 상을 받았다. 또한 전북아동문화회장을 역임하신 후 돌아가시기 전까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셨다. 주요 저서로는 1992년 그림동시집

해바라기 그림을 필두로 1996년 시조집 흥시, 1998년 동시집 징검다리, 2005년 사진집 '한국의 새', 2010년 시조집 가(家)자놀이, 2021년 사진놀이 50년, 2022년 동시 선집 버릴까 말까 등을 저술하시는 등 30년이 넘게 씀 없이 문화활동과 사진작가로 활동하신 분이어서 더 존경스럽다. 조 선생님의 활동 이력은 A4용지 3매가 넘을 정도로 화려하여 지면에 모두 소개하지 못함이 아쉽다. 조소목 선생님은 정음 소성면 출신으로 대한가독고 신학교(현 기독교대학교) 신학과를 중퇴하신 후 한평생을 농업에 종사하셨다. 어린 시절 정음에서 초등학교 다니실 때 담임선생님께서 글을 잘 쓴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받으신 일이 있었는데, 그 칭찬 덕에 자신이 문학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하셨다. 그 좋은 기억이 나서 자신도 글을 잘 쓰는 어린이들에게 담임선생님의 정신을 물려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3년 전부터 소년문학지에 '소목 문예상'을 만들고 상금을 매년 130만~140만 원씩 기증해 오셨다고 한다. 농부가 매년 130만~140만 원의 상금을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데도 그 일을 묵소 실천하셨다. 그러다가 이번에 작고 하시면서 유언을 남겨 아들 조규원 씨가 아버지의 훌륭한 정신을 이어받아 매년 소목 문예상 상금을 대신 내기로 하겠다니 훌륭한 아버지에 더 훌륭한 아들이었다. 페스타로체는 스위스에서 한평생 교실도 없이 나무 그늘에서 부랑아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하고 육사라도 팽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다칠까 봐 사슴피어나 우리 등을 쫓는 것이 하루일과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논문 한 편을 썼는데, 그 논문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육의 아버지가 되었다. 조소목 선생님이야말로 우리나라의 페스타로체에 버금가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감히 부르고 싶다. 부자들도 하기 힘든 일을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의 농부가 자라나는 소년들에게 문학 활동을 장려하는 상금을 주는 일을 시작했고, 그 일을 또다시 아들이 이어받아 하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조소목 선생님의 영전에 명복을 빈다.

사설

전북 도내 늘봄학교 시행

방과후 교육과 돌봄 교육을 결합한 '늘봄학교'가 시행 첫 해 준비 부족으로 학교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늘봄의 경우 하반기부터 전북 도내 모든 학교가 의무 시행 대상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추기를 즐기는 아이들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밝다. 초등학교 12학년 을 대상으로 한 어느 방과 후 프로그램 모습이다. 방과후수업과 돌봄을 결합한 늘봄 시범학교인 이 학교는 1학년 학생 1백 명 중 85명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자기 반이 아닌 늘봄 전용 교실에서 대기하다 사전에 신청한 프로그램 장소를 오가며 오후 6시까지 시간을 보낸다. 이 학교는 학생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덕에 방과 후 늘봄교육을 위한 공간은 여유가 있다. 그러나 시내의 다른 학교들이

모두 그런 상황은 아니다. 도심 과밀 지역 학교는 1학년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는 하반기부터 무려 140개 교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공간 확보가 추진되고 있다. 학생들을 돌보고 행정 업무를 맡아볼 늘봄 실무사 역시 충원이 한창이다. 137명인 현재 방과후 행정 실무사에 더해 163명의 늘봄 실무사를 추가로 선발해 하반기부터는 모두 3백 명의 실무사가 현장에 투입된다. 현행 3시간인 업무 시간이 6시간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도심 과밀학교는 민원이나 감사 관리, 복잡한 예산 처리까지 도맡아야 해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늘봄학교는 학생 1명에게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과 무상 교육이 혼재되고 예산 처리도 복잡해 이 역시 장기적으로 전면 무상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이산가족 682명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과 추석 때마다 더욱 쓸쓸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전북 도내에는 680여 명의 이산가족들이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봉을 기다리며 해마다 명절을 맞고 있을 뿐이다. 올해 99세 김 모 할머니도 그 주인공이다. 당초 일상에 살던 김 씨는 1950년 결혼과 함께 김제로 떠났다. 그 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세 명의 동생이 북으로 갔다는 소식만 확인했을 뿐이다. 그리고 70여 년이 흘렀다. 이산가족 상봉을 네 차례 신청했지만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서 상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는 가족들이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른 것이다. 가족 이야기 할만 하면 눈물이 나온다. 가슴이 먹먹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1988년 당시 13

만 명이 넘었던 전국의 이산가족은 이제 4만여 명만 생존해 있다. 이산가족들은 영성편지를 썼다. 대한적십자사가 제작을 도왔다. 이들은 가족이 살아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지금도 대한적십자사는 대부분 80대 이상인 이산가족들의 유전자 정보를 모으거나 영상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중을 대비해서 일단은 또 고령화되어 있고 해서 그런 어떤 유전자 검사라든지 영상편지라든지 아니면 생애보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전북에서는 682명의 이산가족들이 기약 없는 상봉의 시간을 품고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1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애끓는 시간만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산가족의 민족의 아픔이다. 살아 생전 상봉의 기적을 기원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파리 해방 80주년, 당시 재연하며 행진하는 사람들



29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해방 80주년 기념 퍼레이드가 열려 2차대전 당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국기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1940년 6월 독일이 항복했던 프랑스는 1944년 6월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8월 25일 나치로부터 해방됐다.

헤즈볼라와 충돌로 공항에 발 묶인 여행객들



25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발이 묶인 여행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군이 이날 새벽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아 충돌하면서 48시간 동안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